

수입물가 ‘고공행진’ 무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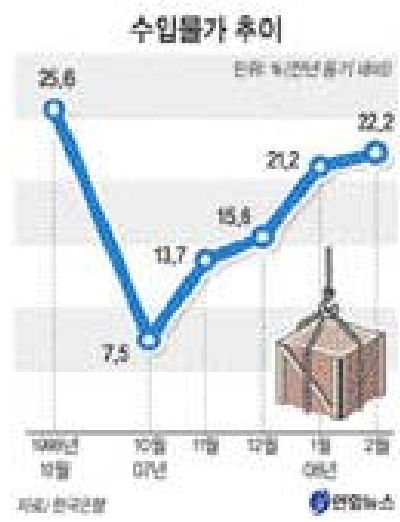
2월에도 22.2% 올라... 9년4개월만에 최고 원자재값·환율 상승세 물가상승 압박 가중

원유와 비철금속·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물가가 폭등세를 이어갔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화표시 수입가격의 상승률보다 원화표시 수입가격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수입물가(원화 기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2.2% 상승,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25.6%) 이후 9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

을 기록했다.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7.5%, 11월 13.7%, 12월 15.6%, 올해 1월 21.2% 등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2.7%로 1월의 3.0%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했다.

이런 수입물가 상승률은 환율변동 효과가 제거된 계약통화 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이다. 계약통화 기준으로 2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로 2.4%, 작년 동월 대비로 19.4%를 나타내 원화 기준 상승률을



이처럼 원화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이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은

원·달러 환율상승이 본격화된 작년 12월 이후 석달째 계속되고 있다. 원·달러 상승이 물가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입물가가 이처럼 폭등세를 보인 것은 원자재와 중간재가 폭목을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급등했기 때문이다. 원유와 곡물 가격에 비해 3.2% 상승했고 동광석은 12.0%, 대두가 9.4%, 밀은 17.0%나 급등했다.

또 고철 12.1%, 구리 11.9%, 알루미늄 13.5%, 식료성기름 24.5%, 백금 26.5% 상승했으며 냉동육은 무려 71.3%나 폭등했다.

한편 수출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반영돼 전월 대비로 1.2%,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7.6% 상승했다.

“국제 곡물가 지속 급등 한국 경제 심각한 타격”

현대경제연구, 보리·밀 등 자급률 낮아

곡물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식량안보체계 확립이 시급하다-최근 곡물가격 폭등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2006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두·옥수수·밀 등 주요 곡물가격이 최근 두달간 최대 57.3%까지 급등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2001~2006년 평균 t당 152달러였던 밀 가격이 2016~2017년에는 183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세계 곡물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과거 곡물가격 폭등이 약천후나 지역 분쟁 등 일시적 불안정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은 개발도상국 급성장,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 다발, 곡물시장으로의 투기자급 유입 가속, 자원 민족주의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지속되고 있는 곡물가격 급등현상은 수입물가 상승을 불러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위축을 야기, 내수부진에 의한 경제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을 제외한 보리·콩·옥수수의 자급률이 2006년 기준 각각 46.5%, 0.2%, 0.8%, 13.6%에 불과해 세계 곡물가격이 변동하면 그 영향이 국내에 그대로 반영되게 돼 있어 국내 식량수급에도 불안이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곡물가격 급등은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탈북현상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연합뉴스

“금융사 절반 ‘상품 설명’ 미흡”

예상 손실 등 말 안해줘... 소비자 20% 언론 보도서 정보 얻어

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상품 설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광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대전에서 사는 20세 이상의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융회사의 상품정보 제공에 대해 36%는 “장점만 설명했다”, 12.9%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46.1%만이 “금융회사가 예상 손실까지 충분히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로 금융회사 직원과 홍보물(45.5%), 대중매체의 보도(20.3%)를 통해 얻고 있으며 여러 정보들중 금융회사 직원이나 홍보물을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50.9%로 가장 많았다.

또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금융회사의 안전성(25.8%)과 상품 내용(24.2%)을 고려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낮은 수익률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제기했다. 금융권역별 응답자의 만족도(100점 만점)를 보면 은행 75.6점, 보험사 64.1점, 증권·투신사 63.7점으로 대체로 낮았다. 상품 약관을 읽어본다는 응답자는 48.3%에 그쳐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생활에서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6.4%로 1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10.4%포인트 상승했다. 금융 분쟁이 발생할 때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응답자가 71.4%에 달했다. /연합뉴스



올 봄 유행 선글라스

지난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1층 매장에서 열린 '2008년 S/S 선글라스 패션 코디쇼'에 참여한 모델들이 올 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선글라스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올 세무조사 확 줄인다

작년보다 1천건 축소... 불성실 신고 업종만 집중 조사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보다 1천건 정도 줄어든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업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획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목표 건수를

지난해보다 1천건 줄어든 1만8천건으로 잡았다며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 수준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였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2만6천건, 2006년 2만2천건, 2007년 1만9

천건 등으로 줄었다. 세무조사 기간은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단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기간 연장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장조사는 재고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이전보다 축소하고 소규모 납세자는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한 업종은 빠르고 소득 탈루율이 높은 불성실신고 업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기업 공채 시작됐다

상반기 채용이 시작한 가운데 공기업들도 인재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16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해운대개발, 사무·행정, 전인연구, 전반기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인·적성 및 직무 채용고교를 내고 250여명 규모로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사무, 기계, 전기·전

자, 화학 등 4개 분야에서 신입사원 56명을 뽑는다. 연령에 관계없이 각 분야별 관련학과 전공자나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로 사무직은 토익 기준 700점, 기술직은 600점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달 말에 채용공고를 내고 250여명 규모로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화인코리아	2008년 각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7	061-330-4523
☎동방중합정기	정규직 소방관련 관리 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18	062-382-2114
☎포토인주	상담 및 촬영보조(실내근무)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8	062-222-0945
전남도청	전라남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대졸/경력무관	3800~4000	03/19	061-286-3442
미림건설(주)	분사 공무, 현장관리 경력직 모집	초대졸/경력2년	2200~2400	03/20	062-511-2005
☎세이자원	사무경리원 구함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3/20	062-962-9802
☎신한토비스(주)	무역 수출입관리 및 해외 거래처관리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21	062-949-7203
☎삼인에듀케이션	YBM ECC남광주 영어강사모집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3/21	062-654-1000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 행정연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1	062-530-1923
부국철강(주)	영업, 영업관리 대졸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2200~2400	03/22	062-832-6011
에네스건설(주)	조직기획의 전문기/수행비서(차량운전) 채용	대졸/경력3년	2400~2600	03/23	062-572-5500
정우개발(주)	건축공무 경력직 채용	초대졸/경력3년	1800~2000	03/24	062-513-6700
☎H&T	[SKT·주5일]114상담원/CRM 멀티상담원(동시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3/24	062-350-6333
벽창호	벽창호 광주지사 코디네이터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3/25	031-717-432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주택대출 금리 급등세로 전환

지난주보다 0.06%P ↑... 서민들 이자 부담 커져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유가와 물가·환율이 동시에 치솟아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금리까지 급속한 상승세를 보일 경우 서민 대출자들이 빚 갚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번 주초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를 연 6.53~7.23%로 지난 주초보다 0.06%포인트 인상했다. 외환은행은 연 6.30~7.48%로 0.06%포인트, 기업은행은 연 6.11~7.48%로 0.01%포인트 인상했다. 국민은행은 연 5.87~7.47%로 0.04%포인트 올렸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연 6.11~7.61%와 연 6.21~7.61%로 0.04%포인트 인상했다. /연합뉴스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의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가 3일 연속 상승하면서 14일 현재 5.23%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은행계 금리에 연계되는 고정금리형 주택대출의 금리는 2주째 등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초 3년 고정금리형 대출 금리는 연 6.43~8.03%로 1주일 전보다 0.30%포인트 치솟았다. 지난 3일 이후 2주간 0.3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주초에 비해 0.29%포인트 급등한 연 6.77~7.67%를 기록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연 7.34~8.04%와 6.69~7.19%로 0.25%포인트씩, 신한은행은 연 6.71~8.11%로 0.24%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주택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최근 물가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가계의 주름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27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4 15 21 33 39 41	25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312,569,000	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3,428,533	31
3 5개 숫자 일치	1,426,602	1,161
4 4개 숫자 일치	55,308	59,894
5 3개 숫자 일치	5,000	944,192

팝콘복권 (제99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4조 516951
2	1억	1조 905242
		5조 940008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각조 80010
4	1백만	각조 9830
		각조 85
5	50만	각조 06
		각조 01
6	2천	각조 3
		각조 1
7	1천	각조 8
		각조 1

1년간 보험사고 통계 반영 보험료 산정 크게 달라진다

내달부터 암·질병·재해 등 ↑ 운전자보험 ↓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가 크게 조정된다. 3월 결산법인인 보험사들이 지난 1년간 쌓인 보험사고 통계를 반영해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표준 위험률(질병·상해 등의 발생확률) 대신 보험사별 자체통계(경험 위험률)를 쓰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어 보험료 조정내역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대체로 암관련 보험료와 질병·재해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료는 인상되고 운전자 보험료, 상해사망보험료는 인하되는 추세다.

◇암 보험, 질병·재해 입원비는 인상=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G생명 보험료 산정기준을 4월부터 경험 위험률로 일원화하면서 '꼭 하나 의료보험'은 20~30%, '중신 의료비 보험'은 10~20% 보험료를 올린다.

한화손해보험은 질병·재해 입원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보험료를 소폭 올린다. 제일화재는 상해 의료비, 특정 질병(16대 질병 및 부인과 질병) 수술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료를 인상한다.

동부화재는 후유장애 보험료를 올린다. 그러나 신한생명의 경우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료를 낮추는 -10~5%, 여자는 -5~0% 조정한다. 인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교보생명도 입원비 관련 특약의 보험료를 소폭 인하할 예정이다.

암 보험이나 특약의 보험료도 대체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진성직협구 증가증,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던 질병이 암으로 재분류됐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수호천사 휴게어 암보험'의 보험료를 2~7%, '수호천사 암 치료비 보장'을 2~5% 인상한다. 메리츠화재도 암 보험료를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신한생명은 연령에 따라 암 보험료에 ±3% 조정하고 한화손보는 동결한다. 그린화재는 갑상선 암의 보험금을 치료비의 100%에서 50%로 줄이면 보험료를 낮춘다.

◇운전자보험, 상해·사망 보험료는 인하=삼성화재는 손해율이 낮아진 상해사망 보험료를 25% 정도 낮춘다. 동부화재도 상해사망 보험료를 인하한다.

제일화재는 상해사망, 후유장애, 운전자비용(형사 합의 지원금·벌금 등) 등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하며 한화손보는 운전자비용 담보 보험료를 소폭 내릴 예정이다. 반면 삼성화재는 운전자비용 담보 보험료를 인상한다.

AIG생명은 '어린이 의료비 보험'의 보험료를 소폭 낮춘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이 고시하는 표준이율이 15년 초과 장기상품은 연 4%, 15년 이하 상품은 연 4.25%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보험사의 상품도 보험료가 내린다.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인상하며 그린화재 등도 예정이율을 올린다. /연합뉴스

서울, 1억 미만 아파트 2천가구 불과 1년반만에 95% 감소

서울에서 1억원 미만인 아파트가 2천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캐브'에 따르면 서울에서 매매가격이 1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2천14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2006년 9월 파주와 은평뉴타운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작년말부터 강북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급감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6년 9월 4만7천516가구에 2006년 12월 3만384가구→작년 4월 2만1천272가구→작년 10월 1만422가구→현재 2천146가구로, 1년 반새 4만5천370가구(95.4%)나 감소했다. /연합뉴스